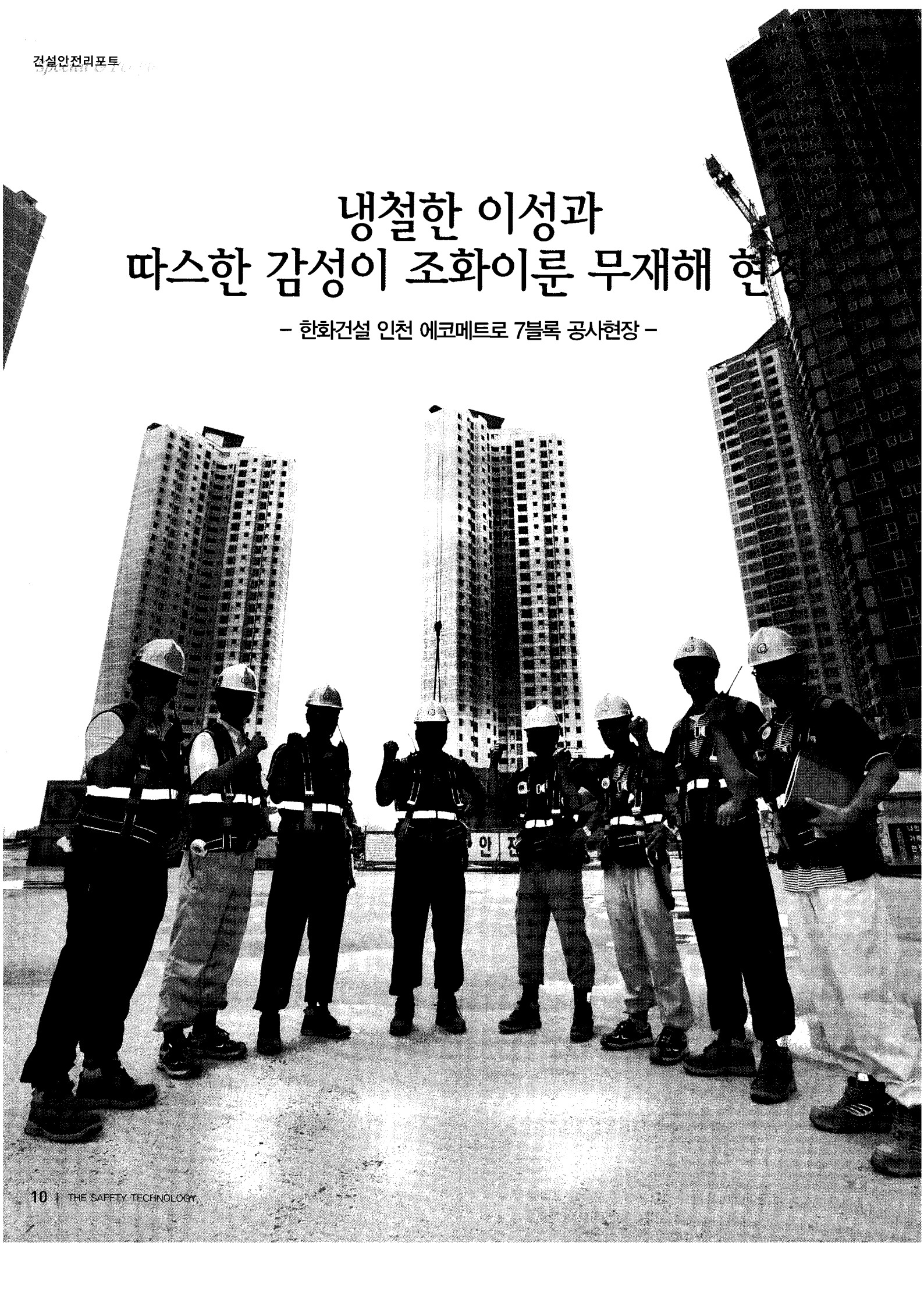


냉철한 이성과 따스한 감성이 조화이룬 무재해 현장

- 한화건설 인천 에코메트로 7블록 공사현장 -





불과 4년 전 고기잡이 어선이 바빠 드나들고, 바다의 낭만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인천 소래포구. 수도권과 인접한 포구로서 일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사해 주던 이곳이 '미래형 친환경 해양주거단지'로 변화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경제중심도시'를 꿈꾸며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인천을 뒷받침할 든든한 배후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미래 인천'의 성패에 큰 몫을 담당할 이곳은 현재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현장은 한화건설이 대한민국의 시드니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에코메트로 현장'이다. '인천 에코메트로'는 인천 남동측 소래논현지구 약 72만평(2,393,748m²)에 약 12,000여 세대(한화건설 7,146세대 조성)가 조성되는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곳 현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물 샬 틈 없는 전방위 안전관리'로 지난 2006년 사업시작 이래 단 한 건의 사고도 허락지 않고 무재해현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곳 한화 에코메트로 현장을 빛나게 한다.

특히 한화 에코메트로 현장 중 7블록 현장은 '2008년도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Hive-Five 운동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제42회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 조업과 거취 건설현장으로 장려상 까지 거머쥐는 등 무재해 현장으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분야의 리더 현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화건설 인천 에코메트로 7블록 공사 현장'을 찾아 무엇이 이들을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시공 우선의 건설현장 구조개선 시급

지난해 불어 닳친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업계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현장이 크게 줄었음은 물론 사업비도 많이 축소됐다. 하지만 진정 우려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공사현장은 줄고 있는데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성근 에코메트로 7블록 소장은 "무엇보다 시공이 우선인 건설현장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안전점검이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만을 따져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성급한 활동이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큰 금액을 투자해 안전설비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작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철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교육 △시설물 확인 및 점검 등만 철저히 해도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신 소장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하니 오히려 수익 증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변칙성이 심하고 의외의 상황이 많은 탓에 안전관리 분야에서 제조업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화건설 인천 에코메트로 7블록 공사현장'에서 펼쳐지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비롯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면 그러한 세간의 평가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현재 '한화건설 인천 에코메트로 7블록 공사현장'에서는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 항목별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위험성에 대한 제거 및 개선을 실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위험요인의 제거실시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정보교육을 실시하여 인적·물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 평가시 위험요인의 정량화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사항은 우선 아침 조회시 일일안전관리자가 해당일에 위험요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회 후 현장 내 15개팀 팀별 TBM시 해당 위험성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및 교육이 실시된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거 및 개선된 사항은 협력업체 점검일지, 일일환경관리자 일지를 통해 기재돼 피드백 된다. 이런 철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원가절감 및 공기 진척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07년 220만원이던 근로자의 평균임금도 2008년 255만원으로 올랐다.

이성에 더한 감성으로 '안전' 완성

"무재해 운동이란 결국 근로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시작되어야만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 소장의 말이다. '한화건설 인천 에코메트로 7블록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철저한 위험성 평가로 시작돼 근로자의 마음을 여는 '감성안전'으로 완성된다. 감성안전의 출발점은 가정 행복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아빠회사 방문하기' 행사였다. 이 행사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직접 체험을 해 봄으로써 자녀들은 아빠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아빠는 자녀를 위해 더욱 안전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임직원들이 근로자들의 안전모를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는 '안전한 당신의 안전모 닦아주기 운동',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한 '자전거 전용 주차장 만들기, 안전의 날' 개최를 위한 '앗차사고 사례 발표 대회', TBM 경진대회, 및 '즐거움 점심시간 영화상영' 등도 에코메트로 7블록은 근로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문화 만들기이다. 이러한 감성안전활동을 통해 한화건설 에코메트로 7블록 현장은 지금까지 무재해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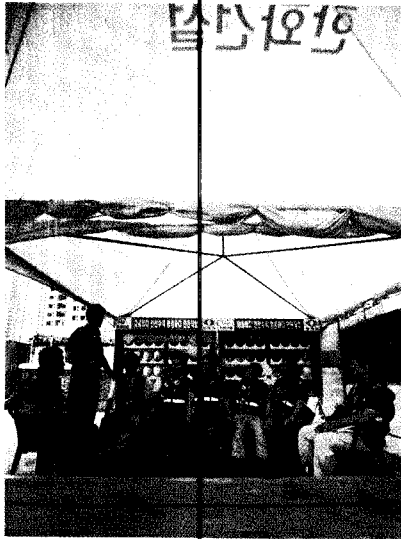
4S 운동을 통한 근로자 행복 되찾기

4S 운동이란 Safety Enforcement(안전독려), Education(안전교육), Engineering(안전기술), Equipment(안전설비)이다. 서영철 안전팀장은 이 4S운동과 함께 2007년 9월 현재까지 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잦은 사고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움직임이 중대재해를 불러올 것이란 압박감이 서 팀장의 불안감을 늘리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쉽사리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결국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앗차사고의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불안전행동의 직접적 원인인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4S 운동이라고 결론내고, 서 팀장은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한 안전교육, 안전모 착용, 마음나누기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모 착용률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공사팀 김창복 공사총괄차장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빌로터에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이 있는 거꾸집 설치작업을 조기 캠프 설치로 위험을 선 제거하는 '안전설비'를 도입했다. 34일에서 17일로 줄였고, 이를 통해 2,000만원의 원가절감이라는 공적을 올렸다. 안전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 노력이 근로자에게 일하기 편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안전관리의 체계가 잡히자 에코메트로 7블록 현장은 '안전'을 위한 'Five 운동'을 연이어 실시했다. 현장의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High) 빌





력하여 1단계, 2단계 추진계획을 세워 각각 6개월간 총 1년의 활동을 진행했다. “위험공정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위험성평가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다.”고 심운섭 근로자위원장은 설명했다.

안전관리자를 믿고 응원하자

김창복 공사차장은 “고된 노동에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현장 분위기가 다양하고 즐거운 안전활동 덕분에 화기애애해졌다.”며 “안전관리자와 그의 추진 마인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에코메트로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칭찬했다. 이처럼 김 차장은 물론 신성근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은 안전관리자에 의해 진행되는 안전행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하려는 안전관리자의 노력을 이제는 전 직원들도 알고 이에 뜻을 같이해 동참을 해주고 있다. 이런 원동력이라면 무재해 준공이라는 에코메트로 7블록 현장의 목표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전은 사랑과 배려의 또 다른 이름

안전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늘 임직원들과 회의를 하며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흔히 있는 것을 떠나서 근로자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감동 받을 수 있는 것을 선사해 주고 싶어 노력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도 소중히 하기 마련이지요. 그 실천행동이 ‘안전모 닦아주기’였습니다. 처음 근로자들에게 임직원들이 “안전모를 닦아 드릴 테니 깔고 앉지 마시고, 아무 대나 두지 마세요.”라며 말하며 시작할 때만 해도 근로자들은 그저 이벤트성의 행사라고만 생각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운동이 계속되자 근로자들도 마음을 열고 안전모를 소중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현장이 현재 제조업에 비해 위험성 평가에 있어 뒤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듯 앞으로 더 짜임새 있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우수사례 발표 대회는 제조업과의 갭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설안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자율적 실천이 중요

제가 안전관리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은 ‘자율안전의 중요성’과 ‘무관심의 배척’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 안전관리는 강제적인 지시나 규정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압적으로 현장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의 안전시스템은 안전관리자만이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모든 관리감독자가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관심은 우리 안전관리의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현장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험이 풍부한 건설전문 안전관리자를 양성해 관련분야에서 다양한 안전관리 기법과 비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신성근 현장소장



서영철 안전팀장